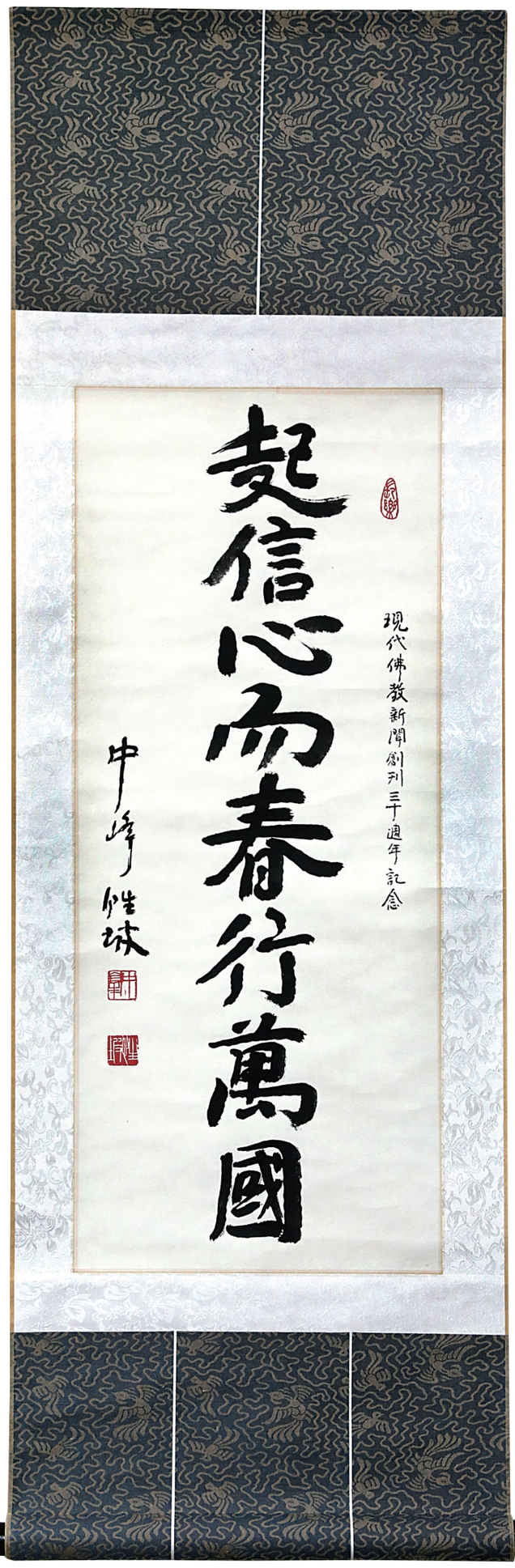
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창간특집
별책 부록 포함
〈독자 감사 인사 카드〉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9월 21일)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신심을 일으켜라. 막힘이 없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친필 휘호 '기신심이춘행만국(起信心而春行萬國)'을 내렸다. '신심을 일으키면 모든 것이 봄길을 다니는 듯 한다. 막힘이 없다'는 것이다. 성파 대종사는 휘호를 내리며 "불교계 언론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특별히 바라거나 할 말은 없다"면서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잘 전해지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뉴욕에 'K-불교' 전하다

석학 대담 · 강연 K명상에 공감
세계평화에 선도적 역할 확신도
미국방문 계기로 교류증진 기대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을 매개로 하는 '선명상(Seon Meditation)'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불교의 진수를 선보였다.

조계종은 10월 5~13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에서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국불교, 특히 선명상을 통한 마음 평안과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0여 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8일간의 일정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내면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명상을 소개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관심을 불러 모았다.

뉴욕 현지에서 석학들과의 대담과 강연은 선명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진우 스님은 10월 9일 맨해튼 코렐클럽에서 세계적 양자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 박사를 만나 '한국 선명상과 양자역할의 대화'를 주제로 대담했다. 과학과 수행의 접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10월 11일 진행된 마음 챙김 명상(MBSR) 개발자인 존 카밧진과의 대담에서는 선명상 소개와 함께, 현대적인 명상과의 공통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명상과 서양의 마음 챙김 명상이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을 가져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앞서 10월 10일에는 미국 예일대 학생 및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선명상과 마음건강을 주제로 하는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참석한 예일대 구성원들과 '5분 선명상'을 함께하며 잠시 마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담과 강연은 한국불교 고유의 문화를 소개함과 더불어 철학, 과학과 맞닿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유하고 선명상을 통해 마음평안과 행복을 찾는 여정을 미국 사회에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 원각사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한 후 동행취재 기자들을 만난 진우 스님도 이번 방미 성과로 "한국 불교, 그리고 선명상의 세계화 가능성"를 꼽았다. 스님은 "K-문화를 공유하고 한국 전통 선인 간화선을 중심으로 선명상을 세계화시킴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인에게 불교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첨단을 걷고 있는 AI시대에 양자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임을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현대물리학을 기반으로, 그것이 절대 부처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 한국불교가 전 세계의 명상 흐름뿐 아니라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불교가 서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이런 노력이 불교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면 살피는 문학 정신 돋보여"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축전

소설가 한강(53)이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온 국민과 함께 환희의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며 축하했다.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진우 스님은 이날 강연차 참석한 예일대에서 동행취재 기자들을 만나 "한강 작가는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마주하는 인간의 삶을 현대적 언어로 다루어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강 작가의 수상을 맞아 시대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살피는 작가의 문학 정신을 함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통찰하며 역사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고요하고 담담하게 주인공들의 삶을 연결해 나가는 작가의 작품들처럼 우리는 각자의 내면과 시대의 상황을 성찰해야한다"면서 "한국불교가 추구하는 선명상과 마음의 평안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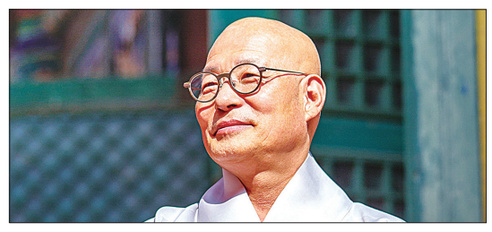
새 디자인, 새 각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이번 창간특집호부터 제호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모든 '현대불교' 상징에 적용합니다. 새로운 서체 디자인은 다변·다양해지는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깔끔한 고딕체워드로 모던함을 추구했습니다.

제2의 창간으로 재도약하는 현대불교가 새 모습으로 시대를 읽어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2024년 창간 30주년 특집호
A·B섹션 6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5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30년 발자취 A7
현대불교 30년 불교뉴스 30선 A9
창간30주년 축하메시지 A11·12·13·14

창간특집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A16·17·18
2054 미래불교 B1·2·3



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B5·7·9·11·12
뉴미디어 시대와 불교 언론 B14·15
SNS '핫스팟'은 어디? 여기! B22·23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이 됐음을 알고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